



# 2017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와 전망<sup>1)</sup>

김유미 연구원

연구

2017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조 8,917억 달러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선진국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전 세계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그러나 세계 보험산업은 선진국시장의 규모의 경제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향후 몇 년간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감율은 선진국시장의 생명보험 실적 악화로 전년 대비 1.6%p 하락한 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1.4%)보다 높은 수치임
  - 선진국시장<sup>2)</sup> 수입보험료는 경기둔화와 생명보험 실적의 악화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3조 8,19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5년간은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시장<sup>3)</sup> 수입보험료는 중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 및 통화가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조 721억 달러를 기록함
  
- 2017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2조 6,573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선진국시장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0.9%p 하락한 수치임
  - 선진국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구매력 약화로 북미(-3.5%), 아시아(-2.1%)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 감소한 2조 595억 달러를 기록함
  - 신흥국시장은 아시아<sup>4)</sup>를 중심으로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호조를 보이고, 중동부유럽은 방카슈랑스 채널 확대가 보험 수요를 견인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8% 증가한 5,978억 달러를 기록함
    - 특히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생명보험 시장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3,176억 달러를

1) Swiss Re(2018. 7), “World insurance in 2017: solid, but mature life markets weigh on growth”를 요약·정리함  
 2) 북미, 서유럽(터키 제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임  
 3) 남미, 중앙유럽,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이스라엘 제외), 터키, 아프리카임  
 4) 중국 21%, 인도네시아 27%, 베트남 24%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흥국시장 보험료 규모의 53.1%, 전체 규모의 12.0%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17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2조 2,344억 달러로 전년 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2.1%를 상회함

- 선진국시장은 미국(2.6%)의 자동차보험 성장과 스페인(2.0%)과 포르투갈(5.6%)이 회복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조 7,605억 달러를 기록함
- 신흥국시장은 인도(16.7%)의 두 자릿수 성장과 태국(5.1%), 중동부유럽(3.3%)의 견고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10.2%)<sup>5)</sup>이 관세자유화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년 대비 6.1% 증가한 4,743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8개 주요시장<sup>6)</sup>의 ROE는 2016년 6.2%에서 5.1%로 하락하였고 합산비율은 2016년 99.4%에서 101.8%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북미지역의 재해손실 증가 등이 원인임

-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한 세계 7위를 기록함

- 생명보험의 경우 2년 연속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생사혼합보험의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세계 생명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7위를 기록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요율인하 및 건강보험(A&H)을 비롯한 장기보험의 견고한 성장세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2016년과 동일한 세계 7위 수준을 유지함
- 한편 2017년 보험밀도<sup>7)</sup>는 3,522달러로 세계 14위, 보험침투도<sup>8)</sup>는 11.6%로 세계 5위를 기록함

- 세계 보험산업은 선진국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시장의 규모의 경제와 중국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몇 년간은 지난 10년간의 성장률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의 경우 신흥국 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요율인상 추세 악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나 보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가격자유화, 디지털화 등)과 선진국시장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kiri**

5) 중국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2016년 20% → 2017년 10.2%

6)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7) 보험밀도는 총보험료를 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를 의미함

8) 보험침투도는 총보험료를 명목GDP로 나눈 것으로 국가경제에서 보험시장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함